

Best Learner에게 듣는 학습전략 노하우 - 주말 내내 알바하면서 학점 4점 넘기는 꿀팁 -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집에서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 되었어요. 학비는 이공계장 학금을 받아서 해결하고, 과외와 학원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특히 군대를 갔다 온 3년 전부터는 주말 내내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활비를 벌고 여윌돈은 저축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당연히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적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학점을 따고 인간관계를 맺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고, 제 고민의 흔적들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 ● ●
전 용 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학부생

1. 방학 때 연습하기

공군 만기 전역 후에 의욕 넘치는 복학생의 마음으로 학교에 돌아왔어요. 전공 9학점, 교양 11학점 수강 신청을 했고, 복학 첫 학기 특유의 오만과 패기로 호기롭게 공부와 알바를 했습니다. 결과는 둘 다 잘 못했어요. 6학점 수강 포기하고, 성적이 안 나온 한 과목을 나중에 재수강하며 겨우겨우 학기를 마쳤습니다. 의욕 충만한 복학 첫 학기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중간고사 직전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학기 초에는 그나마 진도를 따라가지만, 주말에 공부를 못 하고 평일에도 계획 없이 공부를 대충 하다보니 나중엔 진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든 중간고사까지만 잘 버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방학 때 연습을 했어요. 강의계획표가 업데이트 되고 다음 학기 수강할 수업의 교재가 확정되면 미리 교재를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고사 진도의 반까지만 교재를 읽어가면 중간고사 때 진도가 밀릴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서 교재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어요.

2. 노트필기는 손으로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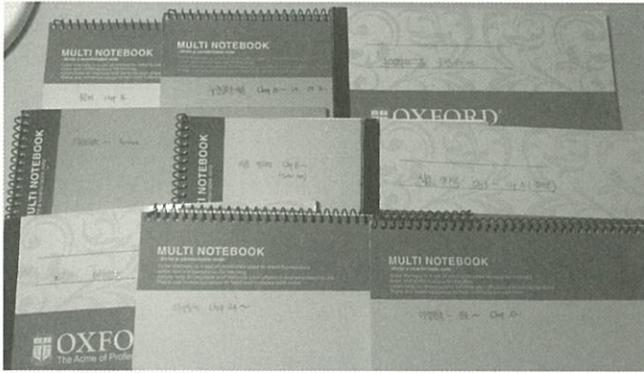


그림 1. 12년 2학기 노트. 한 과목에 3권씩 썼어요.

개강을 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필기는 손으로 했습니다. 전공이 그림이 많이 나오는 생물이라 노트북으로 하는 필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교양 수업 때도 손으로 받아 적은 후 수업 PPT를 출력한 것에 예쁘게 정리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미리 연습을 하고 가니 수업 따라가는 것이 한결 쉬웠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쫓기지 않고 한결 여유로운 상태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말 이틀 동안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 7일의 시간이 있는 다른 학생들보다 1.4배의 시간 효율을 내야 합니다. 공부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수업 직후에 하는 복습이라 생각했어요. 공강 시간마다 도서관에 앉아서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를 읽으면서 수업 시간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PPT를 그대로 다시 쓰면서 외우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하고 외우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쓰면서 정리하길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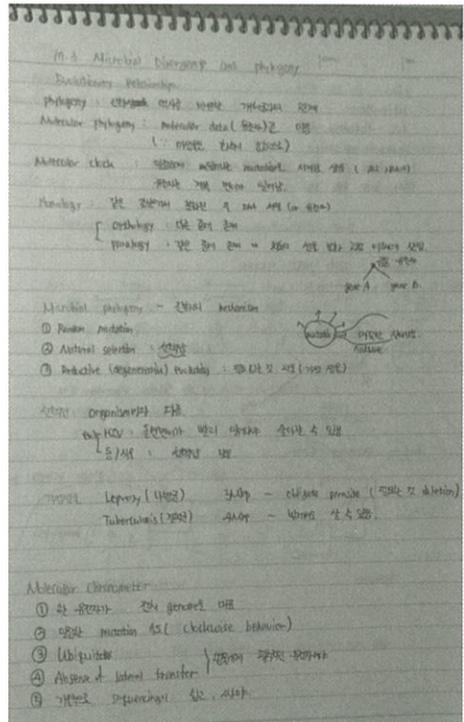


그림 2. 미생물학 노트 정리. PPT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정리했어요.

눈으로만 PPT나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면 지식을 꼭꼭 눌러 담지 못했어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때 답을 쓰려면 어설피게 공부한 티가 나서 제대로 된 답을 못 쓰더라구요. 손으로 쓰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에 비해 많은 집중력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외우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노트 정리를 할 때는 볼펜을 3가지 이상 준비했어요. 각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빨간색: 대단원, 중단원, PPT 각 장 제목

파란색: 소단원 제목, 수업 때 강조한 주요 내용

검정색: 그림과 설명.

빨간색 글씨를 보면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고, 파란색 글씨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검정색 설명을 보면서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요. 처음에는 검정색까지 모두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는 파란색, 빨간색 글씨만 보면서 예상 문제에 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대부분 중단원 제목(파란색 글씨)을 의문문으로 바꾼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3. 시험 준비는 시험이 먼 순서부터 하기

시험이 다가옵니다. 2012학년 2학기 실제 일정을 살펴볼게요.

10월 4일(목) 미생물학 1차, 유기화학 과제.

10월 8일(월) 식물생리학 1차 시험.

10월 9일(화) 유전공학개론 1차 시험.

시험 일정은 강의계획서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시험 기간은 모두 다른 데, 저는 교수님께서 시험 날짜를 직접 공지해주는 날을 시험 기간의 시작으로 생각했어요. 시험기간이 되면 가장 늦게 보는 과목(유전공학개론)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 시험을 보는 과목(미생물학)부터 공부하면 그 과목만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공부한 채 시험을 보는 일이 많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요? 전공 시험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었던 과목들의 최소 공부량은 다음과 같았어요.

① 수업 때 열심히 듣고 필기를 합니다.

- ② 수업이 끝난 후 필기를 PPT 또는 교재에 정리합니다.
- ③ 교재와 PPT를 보면서 노트 정리를 위와 같이 합니다.
- ④ 교재를 또 한 번 보면서 다시 이해하고 노트 정리를 정교하게 합니다.
- ⑤ 시험 전 날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대단원, 중단원 제목)를 보며 예상 문제에 답을 하며 시험을 준비합니다.

4.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짜기

두 번째 단원 공부까지 하면 한 단원을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위에서 말한 ① ②번 과정은 수업 시간 직후 공강 시간에 짧게 하고, ③ ④번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죠. 이를 바탕으로 하면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원 정리 (③, ④번 과정)에 4시간이 걸리고, 시험 범위가 4단원이라면 16시간이 필요합니다. 편의상 시험 보는 3과목 모두 16시간이 필요하다면 총 48시간을 공부해야 하죠. 이렇게 시간 건적이 나오면 현실적인 계획을 짜고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주말 알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친구와의 만남, 통학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12시, 오후 1시-2시, 총 2시간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11시, 총 6시간

수요일: 오전 11시-12시, 오후 7시-11시, 총 5시간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11시, 총 6시간

금요일: (놀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7시-11시, 총 12시간.

일주일 합계 최대: 31시간.

여기에 과제하는 시간 (2~5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4~10시간), 자거나 집중 안하는 시간 (3~5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0시간 공부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결론은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선 약 3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밤새우는 것으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더라도 4시간 이상은 자야 수업과 시험 때 집중할 수 있고, 학기 내내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

학습 전략

교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교시					
08:00					
1교시					
09:00	식물생리학 500-L309		식물생리학 500-L309		
2교시					
10:00					
3교시					
11:00					
4교시					
12:00		미생물학2 500-L310		미생물학2 500-L310	
5교시					
13:00					
6교시	유기화학2 028-102	유전공학개론 43-1-302	유기화학2 028-102	유전공학개론 43-1-302	
14:00					
7교시					
15:00					
8교시	봉사활동	교양1	교양2		
16:00					
9교시					
17:00					
10교시					
18:00					
11교시					
19:00					
12교시					
20:00					
13교시					
21:00					

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계획을 짜는 것이 좋아요. 계획이 바뀔 때마다 수정하고 피드백하여 최대한 실현 가능한 시간표를 만들어보세요.

5. 자기 자신을 믿고 칭찬하기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정말 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주말에

알바하고 나면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습니다. 시험 전날에 무리해가며 공부하기보단 지금까지 방학 때 연습하고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한 것을 믿고 최대한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중요해요. 중간고사 때부터 무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학기 끝까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

여러 이유로 과외와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방학 때부터 미리 공부하고, 복습을 위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점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유와 자신감을 가진다면 학점도 따라올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후에는 입학하고 처음으로 4점을 넘더라구요. 조금은 힘들겠지만 한 번 더 힘내서 자신에게 충실하시면 졸업할 때 활짝 웃으시면서 학교를 나가실 수 있을거라 믿어요. 알바 하는 당신들, 힘내세요!